

미래 창조 사회와 교화단: 사회조직론적 의미

박 정 원(남중교당·원광대 행정학과 교수)

I. 머리글

생물유기체로서 사람에게는 생래적으로 자기보존 본능이 있다. 이는 현실적으로 욕구충족지향성으로 나타나는데 상대적으로 자기이익추구성향이 강한 편이다. 그러나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이타적 성향을 보이기도 한다. 이타적 성향은 공공이익을 위한 자발적 모임을 형성하는 동인으로 작용하여 사회적 연결망의 접착제 구실을 한다.

사람이 산다는 것, 즉 삶이란 현실적으로 보면 다양한 욕구를 충족해 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욕구에는 먹고, 자고, 배설하는 등의 생리적 욕구와 정신적·육체적 안전을 도모하는 욕구, 사람들 사이에 정을 나누고 싶어 하는 애정의 욕구, 그리고 어디엔가 소속하여 인정받고자 하는 사회적 욕구가 있다. 또한 자신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현하고자 하는 자아실현의 욕구가 내재해 있어 자신은 물론 사회발전의 동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런가하면 사람에게는 ‘의미를 찾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데 이는 실천을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다고 정신의학자 빅터 프랭클(1905~1997)은 지적하고 있다. ‘의미를 찾고자 하는 의지’(will to meaning)란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고 이를 성취하려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말한다. 프랭클에 따르면 의미를 찾고자 하는 의지는 ‘쾌락(재미)에 대한 의지’나 ‘권력에 대한 의지’와는 달리 인간의 삶을 진정한 자유로 이끌어 준다는 데 큰 특징이 있다고 한다.

그런데 사람은 혼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어울려(관계성) 함께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적 존재이다. 이 때 개인과 개인 간의 상호작용이 규칙적으로 반복하여 일어나게 되면 일정하게 틀 잡힌 모습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를 일리 사회집단 또는 조직이라고 한다. 이러한 사회조직은 사람들이 바라는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합침으로써 생겨난다. 그리고 사회조직은 또 다른 조직들과 연결망을 형성하여 어느 정도 유형화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를 제도라고 한다. 사회구성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가 형성되어가는 제도화는 어떤 필요한 행동과 관련해서 지위를 정하고 구실(역할)을 할당하는 확정된 규범들을 확립해 가는 과정을 뜻한다. 대체로 어떤 제도적 활동은 자생적인데서 비롯하여 점차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모습으로 유형화되는 과정을 겪게 된다.

예를 들어 제도화 이전의 종교 활동에서는 카리스마적 지도자를 따라 대중들이 모이게 된다. 그러다가 일정한 간격으로 집회를 갖게 되고, 교법체계가 정비되면서 교단이라는 제도적 조직체가 형성되게 된다. 이때부터 사람들의 활동은 일상적 규칙성을 띠게 되고, 일정한 구실들이 생기게 된다.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지위, 즉 성직자가 되고 다른 사람들은 그 가르침을 따르고 실행하는 사람으로 그 역할이 분화된다. 이처럼 사회집단 또는 조직은 사람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질서유지와 더 나은 삶을 위해 창출한 고안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생활의 가장 원시적 상태에서는 가족 또는 확대된 친족집단이라는 사회제도만 있었다. 인간의 모든 욕구충족과 사회질서의 유지는 가족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친족집단에서 모든 다른 사회조직과 제도가 생성되어 나온 모체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다가 사회규모가 커지고 구조가 복잡화해지면서 혈연관계가 아닌 다른 관계들이 형성되게 되었는데, 그중에서도 먼저 종교제도가 분화·독립되고, 역사적으로는 16세기 이후 근대화과정을 거치면서 정치·경제·교육제도가 독자적 실체를 형성하게 되었다. 그 후 기술발달과 대중화의 물결을 타고 여가와 오락의 기능을 담당하는 매스컴 제도, 그리고 후생·복지의 제도적 분화 등 새로운 현대적 제도가 파생하기 시작하였다. 거기다가 1980년대 이후 디지털 정보화사회가 되면서 온라인상에서 새로운 연결망과 공동체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SNS(Social Networking Service)가 대표적이다. 많은 사람들이 SNS를 통해 친구들과 소통하고 많은 사람들과 친분을 맺으며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실시간으로 얻는 통로로 활용하고 있다.

사회제도로서의 종교는 사람들에게 정신적·도덕적 기반을 형성해 주고, 새로운

가치관과 윤리규범을 창출·파급시킴으로써 사회를 통합시키며, 나아가 변화시켜 나간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과정은 다양한 조직과 제도적 수단들에 의존하게 된다. 종교가 추구하는 이상적 가치와 그것의 구현을 위한 제도적 수단, 이 양자 간에 나타나는 괴리와 구조적 모순을 어떻게 극소화해 갈 것인가는 지금까지 제도화된 모든 종교가 직면해 왔던 문제이자,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인간사회의 모든 조직은 규모가 커짐에 따라 관료제적 역기능 현상을 드러냄이 일반적 경향이기 때문이다.

낙후된 농업사회에서 「불법연구회」란 작은 단체로 출발한 원불교 교단은 산업사회를 거치면서 팔목할만한 수준으로 성장하여 한국사회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민주화·정보화란 거대한 사회 변화 속에서, 그리고 2000년대 초부터 전개되고 있는 창조사회에서 별다른 성장발전을 못하고 현상유지와 침체의 늪을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서 이 글은 지금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창조사회에서 광대무량한 낙원세계 건설을 지향하는 원불교 교단의 핵심 조직 단위인 교화단의 사회조직론적 의미를 새겨보고, 사회변화에 대응한 활성화 방향을 논의해 보는 데 그 뜻이 있다.

II. 사회적 삶과 조직의 관계

우리들의 삶은 다양한 조직을 통해 이루어진다. 사람은 병원조직에서 태어나(산부인과 병원) 일생을 마칠 때(장례식장) 까지 수많은 조직들의 제품(기업조직)이나 공공서비스(정부 조직)를 이용하며 삶을 영위해 간다. 사회적 존재로서의 사람은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도 하지만 때로는 치열한 경쟁을 하기도 한다. 이때 조직은 협력과 경쟁의 수단으로 작용한다. 특히 상호협력체제로서의 조직은 그 구성원들에게 자아 정체감을 형성해 주고 목표 달성의 구체적 수단이 된다. 이러한 조직은 18세기 서구에서 시작된 산업혁명 이후 활발히 생성되기 시작하여 20세기 후반 디지털 지식정보화사회가 등장하면서 새로운 양상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일반적으로 인간생활에서 사회조직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개인의 정체감 형성·유지

생각하는 힘 다시 말해 상징화 능력을 지닌 사람은 끊임없이 ‘나는 누구인가?’(나됨) 그리고 ‘우리는 누구인가?’(우리됨)의 의미, 즉 정체의식(正體意識)을 묻고 추구한다. 여기서 정체의식이란 다른 사람과의 상호 작용에 의하여 형성되는 자아 또는 사람됨의 자기다움의 상념을 뜻한다. 간단히 말해 시·공을 넘어선 일관된 자기다움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개인의 정체의식은 참으로 자기만이 갖는 자기다움에 대한 개인 스스로의 이미지이지만, 또 한편 그것은 사회라는 맥락과 동떨어져서 의미가 있을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사회조직의 성원들이 갖는 기대와 규범은 개인의 자아정체감의 형성과 유지를 좌우하게 된다. 다시 말해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라는 것도 결국은 내가 속한, 그래서 내가 그것과 동일시하는 집단의 규범, 그리고 그 집단의 성원들이 내게 거는 기대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신뢰하는 준거 조직집단 안에서의 최소한의 안정성 회복과 관계의 확장만이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하는 해법이 된다. 그것은 신뢰하는 준거집단은 고도의 관리방식에 의해 포획되지 않고, 생명성을 살리기 때문이다.

2. 의사결정과 의사소통을 위한 경로 설정

사회관계에서 인적·물적 자원의 조직화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면 의사결정과 의사소통의 결정을 위한 경로가 체계적으로 마련된다.

사람들의 삶은 숱한 문제들의 해결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해결은 의사결정에 의해 이루어진다. 개인, 집단, 정부, 기업, 종교, 시민단체, 국제기구 할 것 없이 모든 사회주체는 문제해결을 위한 의사결정이라는 활동에 직면하게 된다. 요컨대 의사결정이란 개인, 집단, 조직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목표를 설정하고,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안을 마련하여, 대안들 중에서 최적안을 선택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런데 이러한 합리적 의사결정은 적시에 정확하게 의사전달(소통)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왜냐하면 의사전달(소통)이란 ‘두 사람 이상 사이에 사실, 생각, 그리고 느낌이 교환을 통해 공통적 이해가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

정이나 행위'이기 때문이다. 특히 정보화사회가 진전되면서 의사전달(소통)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지식정보사회가 되면서 전달해야 할 정보의 양은 많아지고, 내용 또한 다양해지기 때문이다.

3. 구성원들 간의 활동을 공동목표에 연결시킴으로써 활동의 효과성 증대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복잡한 조직과 제도 속에서 생존을 위해 일해야 하고 '자아실현'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존재이다. 조직은 일하는 절차이고 인간행동의 협동체계이다. 주어진 인적·물적 자원과 정보, 시간 등을 어떻게 조직하느냐에 따라 그 성과는 크게 달라진다. 또한 구성원들의 상호작용 방식에 따라 업무의 성과가 크게 향상되기도 하고 때로는 감소되기도 한다. 한마디로 조직은 인간의 실현의 효과적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III. 미래 창조사회의 특징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앞으로 살아갈 세상을 '농경시대'(농부), '산업화시대'(공장 근로자), '정보화시대'(지식근로자), '창조시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창조시대에는 창작자나 타인과 공감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주인공이 된다. 이 같은 시대 구분은 지본(地本)사회에서 자본사회를 거쳐 이제 뇌본(腦本)사회로 진입했다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땅이 중요한 시대, 돈이 중요한 시대를 지나 뇌(아이디어, 창의력)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뜻이다. 땅도 돈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뇌, 뇌에서도 좌뇌(左腦)는 물론 우뇌(右腦)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나아가 전뇌적(全腦的) 사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사실적 경험의 세계에서 정확하게 전체를 보고 감성을 관리하고 지혜를 활용하는 것이 중시되는 시대가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1. 정보·산업사회에서 창조사회로

IT 전문가로 유명한 체코의 스테드론(Stedron)은 2010년 이후의 미래를

3단계로 나누어 그 특징을 소개하고 있다. 즉 통합의 시대, 인공지능 자족시대, 불가사의한 것이 없어지는 시대가 그것이다. 시대별 주요 특징을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 통합의 시대(2010~20년)

- 기술적으로 발달한 사회의 모든 입법절차가 인공지능에 기반을 둔 전문가 시스템에 의존한다.
- 지능형 컴퓨터와 통신 네트워크가 교육과정을 장악한다.
- IT, BT, NT의 통합이 과학 분야의 통합을 선도한다.
- 신체 이식을 통해 사람과 인터넷이 직접 연결된다.
- 양자-DNA 컴퓨터와 새로운 물질이 개발된다.
- 전자기 오염으로부터 사람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국내의 로봇 사용 규제)과 데이터 보호를 위한 법이 입법된다.

▶ 인공지능 자족시대(2020~30년)

- 지능형 컴퓨터와 통신 네트워크가 고장을 스스로 고치며, 과학적 연구와 생산 프로세스를 스스로 조정한다.
- 높은 지능을 가진 물질이 개발된다.
- 어떤 로봇들은 법이 정한 인권을 부여받는다.

▶ 불가사의한 것이 없어지는 시대(2030~40년대)

- 새로운 홀로그래픽 모델이 기하학 모델을 대신한다.
-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이 주변 환경으로부터 홀로그래픽 데이터를 추출한다.
- 초감각 인지(텔레파시)와 기(氣)와 같은 신비한 세계에 대해 설명이 가능해진다.
- 인공지능에 힘입어 사람의 지능을 카피할 수 있게 되고, 이러한 카피를 보호하고 규제할 수 있는 법에 대한 요구가 생긴다.

<출처:김광웅, 『창조! 리더십』, 생각의나무, 2009, 31쪽에서 재인용>

2. 소유에서 접속으로, 물자에서 시간으로

1980년대 이후 컴퓨터와 정보통신의 결합으로 물리적 거리가 무의미해지는 ‘접속의 시대’가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소유보다 접속이 더욱 필요하고 중요한 시대가 된 것이다. 소유하기보다 필요한 때 접속하여 활용하면 되는 것이다. 소유한다고 영원히 내 것이 되지도 않고 오히려 관리하는 부담만 따르게 된다. 물건 자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물건의 기능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부동산보다는 時產이 중요시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On-line/Off-line 세계를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새로운 인간형이 등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열린 사고와 유연조직

새로운 생활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선 사람들의 사고가 항상 열려 있어야 하고 창조적이어야 한다. 생각이 비창조적이거나 경직적이어서는 환경변화에 올바로 대응할 수 없다. 개인 뿐 아니라 모든 조직도 항상 변화에 열려 있어야 하고 항상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또한 삶의 터전인 사회조직에서 구조조정의 상시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우선 환경의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모든 개인과 조직이 새로운 환경에 맞게 구조조정을 상시화하지 않으면 적응해 갈 수 없게 된다. 개인이건 조직이건 끊임없는 자기변화, 즉 ‘혁신의 상시화’가 필요하다. 개인은 평생학습과 평생 훈련의 길로 나가야 하고 모든 조직은 상시 구조조정 체제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야 발전과 도약을 기대할 수 있지 그러지 않으면 어떤 조직이든지 현상유지에 급급하거나 소멸될 수밖에 없다.

4. 관계성과 공조 강화

자기변화도 능해야 하지만 동시에 이웃과의 관계성을 중시해야 한다. 나와 이웃, 조직과 조직, 지역과 지역, 그리고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성이 과거보다 훨씬 긴밀해지고 상호작용적이며 상호의존적이 되고 있다. 더 나아가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성에서 마찬가지다. 과거보다 자연의 유한성이 커지면서 자연과 생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5. 신정체성(新正體性)의 창조

세계화, 정보화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개인이건 조직이건 자기 정체성을 새롭게 확립해야 한다. 기술조건과 생활환경의 변화가 너무 급하기 때문에 기존의 자기 정체성에 혼란이 생기기 쉽다. 개인의 자기 정체성에 혼란이 오면 그가 속한 공동체도 혼들리고 무너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여야 하는지를 새로운 시대흐름에 맞게 바로 세워야 한다.

더욱이 세계화는 불가피하게 다문화·다인종·다종교세계를 열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21세기는 기본적으로 ‘다정체성의 세계’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단일문화, 단일종족, 단일종교에 익숙한 사람들이나 집단에게 정체성의 위기와 혼란이 오는 것이 당연한 일일 수 있다.

IV. 교화단의 사회조직론적 의미

후천개벽시대의 새 회상 원불교 교단의 제도적 시원(始原)은 원기 2년 (1917) 10인으로 구성된 최초의 단(團)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정산종사는 「불법연구회 창건사」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¹⁾

「대종사께서 일찍이 조단(組團)방법을 강구하시어 장차 시방 세계 모든 사람의 통치 교화의 법을 제정하시었으니, 그 요지는 오직 한 선생의 가르침으로써 원근 각처에 산재하는 천만 사람을 고루 훈련하는 빠른 방법이니 이제 그 대략을 말하면, 건(乾)·감(坎)·간(艮)·진(震)·손(巽)·이(離)·근(坤)·태(兌) 중앙(中央)을 응하여, 9인으로 한 단(團)을 삼고 단장 1인을 가하여 9인의 공부와 사업을 지도 육성하게 하며, 9단장(九團長)이 구성되는 때에는 9단장(九團長)으로 한 단을 삼고, 단장 일인을 加하여 구단장의 공부와 사업을 지도 육성케 하되, 이십팔수(二十八宿), 즉 각(角)·항(亢)·저(氐)·방(房)·심(心)·미(尾)·기(箕)·두(斗)·우(牛)·여(女)·허(虛)·위(危)·

1) 佛法研究會創建史는 鼎山宗師께서 쓰시고 大宗師의 親鑑을 받아, 「會報」 제37호(始創 22년 8월)부터 49호(始創 23년 11월)까지 연재한 것으로, 大宗師의 탄생에서부터 창립 제1회 12년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다.

실(室)·벽(壁)규(奎)·루(婁)·위(胃)·昂(昂)·필(畢)·자(觜)·삼(參)·정(井)·귀(鬼)·류(柳)·성(星)·장(張)·익(翼)·진(軫)의 순서를 응하여, 최초의 9인 단장을 각장(角長)이라 칭하여 일각(一角), 이각(二角)..., 순으로 나아가 9각장(九角長)이 되고, 이상 단장도 계출(繼出) 되는대로 이와 같은 예로 다시 조직하여 몇 억만의 많은 수라도 지도할 수 있으나 그 공력은 항상 9인에게만 들이면 되는 간이한 조직이었다. 또한 단의 종류도, 위에 수위단이 있고, 그 아래 모든 사람의 처지와 발원과 실행에 따라 전무출신단·전무출신기성단·거진출진단·보통단 등으로 구분하기로 하시었다.」

위 내용에서 주목을 끄는 사항은 9명 단원이 구성되면 ‘단장 1인을 가(加)하여’라는 점과 단(團) 종류를 ‘처지·발원·실행’으로 구분하였다는 점이다. 이를 되새겨보면 단을 구성하는데 중심이 되는 사람은 중앙(땅)이 되고, 중앙은 뜻을 함께 하는 동지들을 모으는데 이때 처지를 고려하여 단에 들어간다는 점이다. 각자의 처지를 따라 참여하고 싶은 단에 들어가게 한다는 점에서 자발성을 중시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에서 기본적으로 단은 자발적 조직체의 성격이 강하다. 자발적 조직체란 어떤 공통된 목표를 추구하고자 사람들이 스스로 만드는 집단을 뜻한다. 여기서 자발적이란 누가 강요함으로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 판단에 따라 참여한다는 데 특징이 있다. 그리고 어떤 경제적·물리적 보상이 아니라 무형적·규범적 가치인 보람과 의미를 중시한다. 특정 관심에 따라 모이는 사람들이 서로의 기대에 입각하여 그 활동에 헌신함으로서 보람과 의미를 찾는 데 자발적 조직의 특징이 있다. 그리고 자발적 조직의 구성원은 누구나 참여하도록 문호는 열려 있으되 특수한 관심, 또는 공유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단순한 참여가 아니라 진정성을 갖는 참여가 이루어질 때 활성화는 가능해진다.

한편 단 구성에 있어 ‘단장 1인을 가한다’는 데 그 핵심이 있다고 판단된다. 단장은 9인 단원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지도자로서 진리적 소명의식을 갖고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하는 원불교 교단의 핵심적 직책이라고 할 수 있다.²⁾

2) 현행 교당 교화단 규정에 단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단장은 단원을 상대로 다음과 같은 일을 하며 중요한 사항은 사전에 담당교무와 상의하여 처리한다. ① 단원의 신앙과 수행 지도 ② 단별 훈련 실시 ③ 단별 각종 활동 전개 ④ 각종 모임 출석 독려 ⑤ 상통하달의 연락 ⑥ 정기 또는 수시 순교 ⑦ 단관리와 일원 세계 건설에 필요한 일 ⑧ 기타 단 내·외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파악하여 신속히 대처해 나간다.(제11조) 또한 ‘단장은 단원의 공부·

다음에 교화단³⁾의 사회조직론적 의미를 간단히 생각해 보기로 한다.

1. 배움과 돌봄의 터전(공동체)

교화단은 근원적 진리를 가르치고 배우며 실천해 가는 터전이다.

생물유기체로서의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것은 누군가로부터 가르침을 받으면서, 다른 한편 스스로 배움이 가능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암에의 욕구, 또는 배움은 인간에게 있어 본능이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서로 배우고 익히며 공유함으로서 개인적 삶과 공동체적 삶을 윤택하고 격조 있게 일궈간다. 이 때 가르치고 배우는 내용은 축적된 지식·정보와 기술, 공유하는 가치와 행동 규범, 그리고 생활의 지혜 등이 중심을 이룬다. 그러나 가르침과 배움의 궁극적 목표는 사람마다 내면에 깊어 있는 진실(또는 진리)을 탐구하고자 하는 호기심을 일깨워 이치에 부합하는 삶을 영위토록 하는 데 있다. 다시 말해 자신과 사물, 그리고 사회·자연·우주현상의 본질을 알아내고, 그로부터 「나됨」과 「우리됨」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가르치는 사람의 힘은 배우는 사람의 내면에 잠재해 있는 지적 호기심을 일깨워 주는 능력에 있다. 일생을 통해 돈오(頓悟)하고 점수(漸修)할 수 있도록 밑천을 마련해 주고 안내하는 것이 가르치는 사람의 구실이다.

소태산 대종사는 인간사회와 우주 자연의 근원 진리를 깨달아 가기 위한 빠른 길로 정신수양·사리연구·작업취사의 삼학(三學)병진 공부법을 새롭게 밝히었다. 또한 교화단 활동을 통해 실천해 가도록 하였다. 정기훈련과 상시 훈련을 연결시키고 ‘교당내왕시 주의사항’을 실천해 가도록 하는 데 교화단의 중요한 역할이 있다. 교화단은 ‘가르치고 배우며’ ‘서로 서로 돌보는’ 삶의 공동체이다. 배울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게 하고,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게 하며,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활동의 터전이 교화단이다. 이 때 돌봄과 배움의 대상은 약자만이 아니라 우리

사업·생활개선의 실적을 조사하여 월말과 연말에 상단의 단장에 보고한다’(제12조)라고 규정되어 있다.

3) 교화단이란 용어는 원기 27년(1942)에 제정된 불법연구회 회규에 처음 등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단의 시대적 변천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장진수, “단을 통한 교화활성화 방안,” 「교화단 활동 사례 및 활성화 방안」, 원기 95년, 교화연구소 연구발표집, 79-105쪽 참조

모두가 될 수 있다. 내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채워주고, 다른 사람이 부족한 것이 있으면 내가 채워주는 것이다.

‘돌봄’이란 상대의 약함이나 여림에서 비롯되는 요구를 받아들이는 응답에 기반을 둔다. 단순한 ‘응답’이 아닌 ‘책임’이다. 책임이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의 약함과 여림에서 비롯되는 요청에 대한 응답행위이다. 이러한 행위는 과거에는 가족을 포함한 마을, 학교, 교회 등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 같은 삶의 모든 공동체적 기반이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무너져가는 현 단계에서 ‘나됨’과 ‘우리됨’의 의미, 즉 정체성을 확립하여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한 방안으로 교화단은 새로운 의미있는 사회적 단위가 될 수 있다고 본다.

2. 리더십 함양의 터전

지도자란 “구성원들에게 바람직한 방향을 ‘가리키고’, ‘이끌고’, ‘가르치는’ 구실을 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리더십(지도력)이란 ‘옳은 일을 바르게 하는 것’, 좀 더 구체적으로 ‘구성원들의 욕구에 부응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풀이해 볼 수 있다. 이 때 욕구는 육체적, 안정적 욕구와 자아실현의 욕구 등이 포함된다. 리더십과 관련된 자아실현은 다른 사람과의 상호실현과정을 통해 추구하게 된다.

이 점에서 지도자는 선천적으로 타고나기보다는 후천적 노력에 의해 육성되는 면이 더 강하다. 또한 우리들 모두는 때와 장소에 따라 리더가 될 수도 있고 추종자가 될 수도 있다. 그러면 리더의 핵심 역할은 무엇인가? 그것은 결속이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생각들을 가진 개인들을 끌어들이고 포용해서 결속시키는 데 리더의 존재가치가 있다.

이 같은 리더십론에 비추어 볼 때, 단장은 출가·재가를 막론하고 교단적 차원의 종합체계적 교육훈련을 통해 꾸준히 육성되어야 할 최우선 과제이다. 교단발전의 원동력은 일원의 교법으로 훈련된 단장 양성에서 비롯된다.

진실한 인간의 행동이 모두 그러하듯이, 가르치는 행위도 인간의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다. 진정한 가르침은 지성, 감성, 영성의 3측면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가르침을 지성으로 축소해 버리면, 그것은 차가운 추상적 개념이 되어 버리고 감성으로만 다룬다면 나르시스적 감상주의가 되어버린다. 또

한 영성으로만 접근한다면 이 세상과의 연결을 끊어버리게 된다. 따라서 지성, 감성, 영성이 혼연일체가 되어야만 바람직한 가르침이 될 수 있다.

3. 교화단은 정체성 확립의 터전이자 원융회통(圓融會通)의 통로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사회 속에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존재인데, 현대사회구조는 그 기능을 어디에서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모든 사회조직은 생산성과 효율성의 잣대로 사람을 평가할 뿐이다. 오직 효율성의 중대 수단으로 경쟁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황폐화된 정신과 육체적 피로로 위기에 처한 현대인들은 어디선가에서 삶의 근원적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시방세계를 응하여 조직된 교화단이야말로 그에 상응하는 제도적 터전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교화단 활동을 통해 단원들은 원만하게 포용하고(圓) 벼무려 하나되고(融) 만나고(會) 소통하는(通) 능력을 기르는 터전이 되어야 한다. 소통과 단합은 모든 문제해결의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원융회통하는 교화단이 될 때 교단운영도 원활하게 될 것이다.

V. 맷 음

인류사회에서 오랫동안 개인적·공동체적 삶의 기반이었던 가정·마을·학교·일터 등 다양한 사회제도적 기반이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서 무너져 가고 있다. 또한 지금 세계는 지난 2-3세기동안 지속해온 ‘물질중심 자본주의’시대에서 생명 그 자체를 중시하는 ‘생명자본주의’시대로 바뀌어 가고 있다. 산업자본주의와 금융자본주의 시스템을 어떻게 생명자본주의로 전환해 가느냐, 구체적으로 교육·정치·경제·종교·문화·사회 전반의 틀을 바꾸는 운동이 절실한 시대에 살고 있다. 한국사회 또한 산업화시대와 민주화시대를 넘어 생명문화시대로 이행해 가고 있다. 1960년대 인간의 기본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몸부림치던 생존권시대와 1980년대 재미를 추구하던 생활권시대, 그리고 2000년대 초 삶의 질을 중시하던 웰빙시대를 지나 최근 들어 삶의 의미를 추구하려는 새로운 시대 흐름이 형성되어 가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인류 역사는 배우고 가르치는 행위에 의해 진화·발전되어 왔다.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무언가를 배우려는 삶에의 욕구를 지닌다. 인간에게 있어서 배우고자 함은 생물학적 본능인 동시에 문화적 관성이기도 하다. 인간은 배움에 의해 축적된 문화유산을 후손들에게 전수함으로써 사회는 진보한다. 다시 말해 가르침과 배움은 개인과 집단의 생존 및 삶의 질에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그런데 현대 사회의 변화속도와 폭이 너무 크다 보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심한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다. 만약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는 능력을 창조적으로 키워가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은 더욱 위축되고 도태될지도 모른다.

특히 디지털 지식정보화사회에로의 급속한 이행은 새로운 지식의 폭발적 증가와 함께 가르치고 배우는 행위에도 혁명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우선 종래의 가르치고 배우는 일방향적인 관계에서 서로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호혜적 관계로 바뀌게 된 것이다. 왜냐하면 지식정보가 폭증하는 현대사회에서는 누구든지 해당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사회발전은 인간의 자유와 존엄을 기본으로 하면서 공동체 구성원간의 상호설득과 자기교육을 통하여 개개인의 공동체의식과 책임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의 삶은 타인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성립될 수 없기 때문이다.

요컨대 지금 열려가고 있는 창조사회에서 교화단은 ‘배움과 돌봄의 터전’, ‘지도자 육성의 터전’, ‘정체성 확립의 터전’이자 ‘원융회통(圓融會通)의 통로’로 자리매김되어 가야 할 것이다. 또한 창조사회에서 교화단 활동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첫째, 정전(正典)에 바탕한 교법으로 훈련된 단장 양성, 둘째, 쳐지·발원·실행을 고려한 단 편성 및 운영관리, 셋째,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교화 콘텐츠 개발, 특히 인터넷과 스마트폰 기반 교화단 관련 서비스 체계를 확립하는 데 교단의 정책의지가 최우선적으로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미래학자 존 나이스비트가 ‘21세기의 가장 흥미로운 약진은 기술로 인해 일어나기보다는 인간됨의 의미가 넓어짐에 따라 일어날 것이다.’라고 전망한 것은 미래창조사회에서의 교화단 활동방향에 의미있는 시사점을 함축하고 있다고 본다.